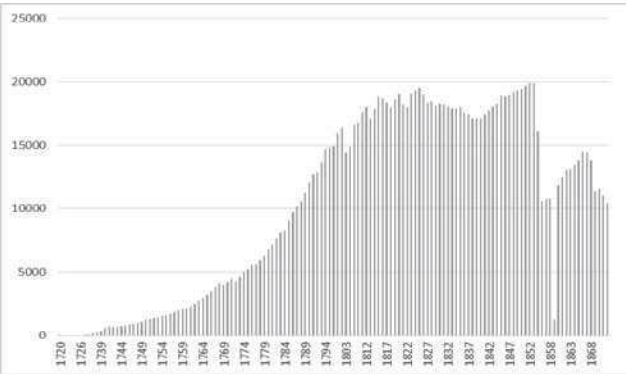


가미야 스즈키 가문이란?



▲가미야 스즈키 가문 문서(금은 출입장부 등 장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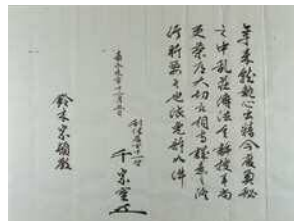
▲가미야 스즈키 가문의 이익과 순자산액 추이

가미야 스즈키 가문은 시조 리헤이가 겐로쿠기(1688~1704)에 오가이토무라(현재 스키모토초) 지역에서 아스케 혼마치로 이주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대 모하치로 때부터 토지를 모으고 된장 제조, 쌀, 콩, 면, 종이상인, 전당포 등의 금융업을 했습니다.

4대 겐소 때에 아스케 영주인 혼다 가문의 어용상인이 되어 옷, 된장, 곡물 취급, 금융업으로 총자산이 금 1만 냥을 넘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아스케를 대표하는 거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대 시게요시 때에 신전 경영을 왕성히 운영하여 분카 3년(1806)에 혼다 가문에서 상인이면서 가신단(무사)과 동격인 '가추나미'의 격식을 받았습니다.

【COLUM】가미야 스즈키 가문이 영위한 문화 활동 -다도, 향도, 가도-

축적한 부를 배경으로 가미야 스즈키 가문의 당주는 다양한 예술을 향유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에 다도와 향도(香道), 가도(歌道)가 있었습니다.



▲겐겐사이에 의한 스즈키 소톤에 보낸 면장



▲가미야 스즈키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향도 도구함

【다도】

덴포 12년(1841) 가미야 스즈키 가문 8대 리조(소톤)과 그의 삼촌인 신타쿠(분가)의 리스케는 우라센케 11대 당주인 겐겐사이 소시쓰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데라베와타나베 가문 가신인 우라센케의 유력한 문인이기도 했던 쓰즈키 소무(세이카)를 통해 다도를 전수받았습니다.

가미야 스즈키 가문에서 빈번히 열렸던 다도회는 아스케의 상인이었던 후카미 소시치로, 가인으로도 저명했던 이타쿠라 사이바 등이 참가하여 문화적 살롱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도(香道)】

고카 5년(1848) 7대 리헤이가 향도의 시노류 당주였던 하치야 다추로부터 향도의 기예를 전수받았다는 허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늦어도 이 무렵까지는 열심히 향도를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도(歌道)】

메이지 8년(1875) 11대 시게스즈가 일본의 전통적인 시 와카를 잘 하는 사람들의 모임 '마유미노 가이사'를 설립. 후에 마유미샤로서 아스케 가단을 이끌었습니다.